

▶ 아동

아동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인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전 화 영*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아동학대와 방임은 어느 문화, 어느 인종, 어느 사회경제적 집단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아동에 대한 주요 가해자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며 실제에 있어서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친척, 가족의 친구, 이웃, 안면 있는 사람, 또는 낯선 사람 까지도 모두 가해자가 되고 있다. 본 사례는 이중 아동 모(母)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아동이 밤늦은 시간 방치되고 있으며 모의 부적절한 남자관계로 인해 아동의 양육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된 사례이며 실제 심리적, 물리적으로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접근 방법을 진행함으로써 이를 소개하고 아동이 심리적, 정서적 치료과정을 살펴봄과 동시에 예방 및 치료서비스 모색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본 사례는 2006년 3월에 초기상담 및 부모 상담을 시작으로 2007년 4월까지 총 28차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였기에 치료과정 및 수퍼비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자 한다.

아동은 아동부모의 이혼 이후 아동 모가 양육을 맡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및 밤 시간 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아동부가 양육을 대신하였고 아동부가 교대근무로 인해 아동이 보호자로서의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어 아동부가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모래놀이치료를 진행하는 도중 장기시설입소 원함.

아동은 잘 울고 빠지고, 산만해지며 공격적인 행동과 감정의 기복이 심하였는데 심리검사 결과, 자신의 내적자원을 통해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무언가 외적인 자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하였으며 미숙하고, 퇴행적이며, 의존적이고, 상당한 자기 부적절감, 이와 관련된 우울감, 충동적 행동 등이 시사되었다.

모래놀이치료 과정 전반기에는 애정에 대한 욕구 및 충동적인 성향을 모래상자에 분출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갈망하는 내면의 욕구가 투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반기에는 경계 및 분할과정을 통해 억압된 내적인 에너지와 그리움에 대한 억압이 간접적으로 표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재생 및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물과 조력자(helper)의 등장으로 인해 아동의 심적 에너지의 전환을 알 수 있었다.

하반기에는 중반기의 심적 에너지의 전환을 통해 내면의 부정상의 등장과 내적, 외적의 교류가 진행되는가 하면,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나타냄으로써 에너지원의 등장과 내면의 family 가 구축된 것으로 판단되어져 수퍼비전 결과 본 사례의 치료적 개입을 종결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모의 이혼이후 방임환경에 처하고,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시설입소되어져 해체가정 환경에 처한 아동이 초기 충동적 행동과 퇴행행동을 보이다 모래놀이치료를 통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내면의 성장 및 심적 에너지 회복으로 전환되어지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아동학대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인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보다 더 심층적인 치료적 개입이 진행되어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다.